

요즘 스크린 ‘실화영화 돌풍’…왜?

“알아야만 하고, 또 알려야 할…진실을 찍고 싶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 역시 수없다. 거기에 허구의 스토리를 덧댄다. ‘이야기로서 완결성’을 갖춘 또 다른 현실이 스크린에 구현되는 순간이다.

현재 상영 중인 ‘군함도’와 ‘택시운전사’ 역시 마찬가지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아픔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각각 소재로 삼은 두 작품은 화제와 논란 속에 적지 않은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관객은 왜 이 같은 실화영화에 호응하는 것일까. 사실(fact)과 허구(fiction), 실화영화가 안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고민의 답은 또 무엇일까. ‘군함도’와 ‘택시운전사’를 계기로, 최근 10년간 흥행한 작품들을 통해 실화영화를 되짚는다.

‘택시운전사’ 화제 속 실화영화를 다시본다

2003년 ‘실미도’ 첫 1000만 실화영화시대 개막
‘부러진 화살’ 심재명 대표 “신뢰감이 흥행 무기”
‘도가니’ 장진승 대표 “몰랐던 사실일 뎀 폭발적”
제작 뎀 사건 인물에게 허락 받는 등 세밀한 검토

#1. 2009년 9월

1997년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종필 씨가 살해당했다. 한국계 미국인 아더 패터슨과 그의 친구인 재미교 포 에드워드 리가 강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고, 사건은 영구미제로만 남겨지는 듯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법원은 아더 패터슨에게 살인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재수사 뒤였다. 그 사이 재수사 여론에 불을 붙인 것은 해당 사건을 다룬 고 흥기선 감독의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었다.

#2. 2011년 9월

광주의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장애아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해당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일부 송방망이 처벌이 마무리된 뒤였다. 하지만 작가 공지영이 이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 ‘도가니’를 원작 삼은 동명 영화가 개봉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졌다.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개정됐다.

#3. 2017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영화 내용 중 계엄군이 시민들을 조종·사격하는 장면이 “완전히 허위날조”이며 “당시 계엄군들이 공격을 받아 자위 차원에서 사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은 “당시 상황이나 사건 자체는 폭동인 게 분명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엇비슷한 주장을 담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법원은 이미 “사실과 다르다”면서 출판 및 배포 금지 판결을 내렸다.

한 편의 영화가 지닌 사회적 반향과 파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현실의 에피소드들이다. 그 가운데 한 편, ‘이태원 살인사건’을 만든 영화사 수박 신범수 대표는 “죽은 자는 있는데,



덕혜옹주의 일생,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는 실화영화의 소재가 됐다.
스포츠동아IDB

죽인 자는 없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한국사회의 또 다른 단면을 드러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처럼 2003년 영화 ‘실미도’가 최초로 1000만 관객 시대를 연 이후 실제 현실에서 벌어졌던 사건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본격적인 실화영화가 잇따라 등장해왔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실화영화는 대중성 확보에도 성공하며 다수의 작품이 흥행하고 있다.

●실화영화…왜 만들고 왜 보나

제작 관계자들은 사건 혹은 인물에 대한 ‘관객의 신뢰와 관심’에서 그 요인을 찾는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과 ‘부러진 화살’ 등을 제작한 명필름 심재명 대표 역시 “실화는 관객에게 ‘이건 진짜 이야기’라는 신뢰감을 준다”고 설명했다. 영화 ‘박열’의 이준익 감독은 “실제 사건을 기억하는 대중이 있다”면서 “실화영화는 그들의 관심을 촉발

하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실제 사건이 갖는 이야기의 명확성과 구체성, 확산성이 그만큼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 벌어졌던 이야기와 실존인물에 관한 정보가 없는 관객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도가니’와 ‘화려한 휴가’ 등 실화영화에 참여했던 장진승 오스카10 스튜디오 대표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관객 반응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도 “사건을 아는 이에게는 환기 효과가, 모르는 관객에게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가 되는 셈이라고 보았다.

실화영화는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는 창작자들의 항상적인 고민이 낳은 또 다른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찬일 평론가는 “영화의 소재를 찾는 것은 모든 창작자의 고민거리다”면서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기존의 사실을 활용하는 게 제작 측면에서 비교적 수월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신범수 대표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몰고 온 반향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실화를 통해 사회적인 이야기를 그려내려는 창작자로서 욕구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실화영화…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런 욕구 위에서 제작 관계자들은 실제 사건과 인물 그리고 그와 연관된 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실화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할 때 영화화에 대한 해당 인물들의 사전 허락을 받거나 최소한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든 심재명 대표는 “당시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과 임영철 감독 등에게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영화화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허구의 인물을 통해 실제 사건을 그렸지만 관객이 결국 실제 인물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공적인 사건을 다루거나 극중 인물이 특정인으로 추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굳이 허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이는 각기 영화가 그려내려는 이야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창작자의 판단에 달린 셈이다. 심 대표는 “사건이 풀고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와 그 실제 이해당사자가 맞물릴 경우 더욱 세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실과 허구의 묘사, 그 경계선에서 창작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이기도 하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팩트와 픽션사이…엇갈린 해석 ‘위험한 줄타기’

‘군함도’ 강제징용 조선인 탈출 왜곡 논란
이준익 감독 “실증 바탕 사실 확장일 뿐”
실화라 해도 영화…해석은 관객 개인의 몫

실화영화는 아니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모티브를 따온 영화 ‘암살’은 해방 직후 친일파가 독립운동가에게 암살당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린다. 실제 역사적 사실과는 조금 다른 결말이다. 그렇다면 이진 왜곡인가, 아닌가.

이준익 감독은 실화영화는 “실존성(인물), 사실성(사건), 정확성(시기) 등이 실제와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다만 사실(fact)을 바탕으로 이를 영화적으로 그려냈다면 그건 왜곡이 아니라 사실을 확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강제징용당한 조선인들의 탈출 이야기를 그린 ‘군함도’가 몰고 온 역사왜곡 논란을 일축했다. 그들이 실제 탈출하려 한 실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진승 오스카 스튜디오10 대표도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실화영화는 얼마든지 허구(fiction)의 창작이 가능하다”면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모두 실화와 실존인물을 다루는 창작자로서의 고민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하지만 사실의 이야기를 다룰 때 영화적 상상력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느냐에 관한 명확하고 원론적인 답은, “없

다”고 이들은 말한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허구와 사실의 경계는 그 누구도 설정할 수 없다. 그런 설정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받아들이는 문제다”고 말했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도 “특정 이야기와 소재에 영화적 상상력을 얼마나 발휘해도 되는지 문제는 어렵고도 모호하다”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반응은 엇갈리게 마련이다”고 덧붙였다. 영화사 수박 신범수 대표는 “사실을 그릴 때 재연극으로만 끝난다면 된다는 시각과 어설픈게 만들면 좋은 소재를 이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면서 ‘이태원 살인사건’ 제작에 얽힌 반성을 내놓았다.

다만 “현실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다수의 관계자들이 동의한다. 그런 점에서 영화 ‘암살’의 마지막 장면은 왜곡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한다. “현실에선 없는 이야기이지만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친일파 단죄에 대한 욕망을 영화적으로 그려낸 판타지”라고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말한다.

결국 실화라 하더라도 영화 속 이야기인 것은 분명만 만큼, 심재명 대표의 말처럼 “사건과 인물의 이야기를 영화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어떤 시각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본질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윤여수 전문기자

‘1987’ ‘서울’ ‘남산’…실화영화는 계속된다

‘1987’ 강동원,故 이한열 열사로 특별출연
‘서울’ 88올림픽 숨은 영웅 공무원 이야기

실제 일어난 일과 실존 인물을 돌아보려는 영화화의 시도는 계속된다. 미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발굴은 물론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마지막 촬영이 한창인 영화 ‘1987’은 1987년 민주화항쟁의 기록제가 된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리려는 이들의 열망을 그린다.

주연배우인 김윤석과 하정우, 유해진의 극중 이름은 비록 허구로 지었지만, 1987년 민주화운동에 얽힌 실존인물을 빚낸 인물들이다. 이에 더해 특별출연으로 참여하는 강동원은 6월항쟁을 촉발한 고 이한열 열사 역할을 맡았다.

장준환 감독은 “‘6월항쟁’은 우리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이기에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며 “많은 나라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룬 민주주의를 우리는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뤘고, 그래서 6월항쟁을 더 깊게 들여다보려 한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기획 단계인 영화 ‘서울’은 미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영웅들의 실화다.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공무원의 활약을 그린 영화는 1981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확정 한 독일 바덴바덴 IOC 총회 등 실제 벌어진 일들로 이야기를 채웠다.

‘1987’과 ‘서울’은 실화가 바탕인 만큼 허구로 꾸민 영화보다 현실성을 담보한 감동이 진하다. 이미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그 완성도를 인정받았고, 덕분에 섭외하기 어려운 배우들이 먼저 참여해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정재가 주연과 제작을 맡은 ‘남산’도 마찬가지다. 1983년 일어난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테러를 둘러싼 비밀을 그린 첩보 액션 영화로, 제작 준비에 한창이다. 이해리 기자 gol1024@donga.com

편집 | 좌형경·김창조 기자

최근 10년간 한국 실화영화 흥행 성적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자료)
※개봉시기(년) / 영화 / 소재가 된 실제 사건·실존인물 / 관객수(명) / 감독

2008

추격자

2003~2004년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504만 / 나홍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대표팀
401만 / 임순례

2009

국가대표

열악한 현실 속
스키점프 대표팀
803만 / 김용화

2010

포화속으로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학도병들
333만 / 이재한

2011

도가니

2000~2004년
청각장애학교
장애아 성폭력 사건
466만 / 황동혁

2012

부러진 화살

2007년 대학교수 석궁 사건
346만 / 정지영

2013

7번방의 선물

1972년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
1281만 / 이한경

변호인

1981년 부림사건
1137만 / 양우석

2015

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604만 / 김학순

히말라야

2005년 영혼길 대장의
휴먼원정대
775만 / 이석훈

2016

밀정

1923년 황옥 경부 폭탄 사건
750만 / 김지운

인천상륙작전

1950년 인천상륙작전
705만 / 이재한

덕혜옹주

대한제국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
559만 / 허진호

2017(8월9일 현재까지)

군함도

일제강점기 일본 히시마섬
강제징용 / 630만 / 류승완

택시운전사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독일 기자와 택시기사
581만 / 장훈

재심

2000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 242만 / 김태윤

박열

일제강점기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 박열과 연인
가네코 후미코(아래 사진)
235만 / 이준익

